

# 교재 강매·다단계 판매 등 새학기 '악덕 상술' 기승

## 광주 미성년 피해 울들어만 14건

새내기 대학생인 광주C대 1학년 김모(19)씨는 지난 1월 초 컴퓨터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관련 교재를 30만원에 구입했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노동부와 연계해 일자리까지 알아봐 준다는 교재 홍보 문구를 보고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교재를 받아본 결과 내용도 부실하고 일자리 연계도 의심스러워 판매처에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그럴 듯한 문구로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는 악덕상술이 많다는 것을 이후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용이 부실한 교재나 화장품 등을 강매하는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 YWCA소비자상담실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와 관련된 피해사례는 70건으로 화장품 50건, 교재 및

자격증 관련이 2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벌써 14건이 접수되는 등 새 학기를 맞아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지난해 어학 교재, 자격증 교재, 유아용 교재, 학습지 등 학습 교재와 관련해 620건이 접수됐다고 최근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어학교재의 경우 전화관련판매 178건, 방문판매 103건 등 두 가지 판매 유형에 따른 피해가 전체의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교내에서 방문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을 듣고 관련 교재를 구입했다가 추후 계약취소를 요구할 경우 업체들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 취소 기간인 14일이 지나어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광주 YWCA소비자상담실 김미희 부장은 "학교 인근에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무료 테스트 등을 해준다면 접근할 경우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면 안된다"며 "고가의 물건을 살 때도 물품 사양이나 계약 조건 등을 잘 살펴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구입 전엔 부모와 상의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단 기간에 고수익을 낸다고 말하거나 지연·학연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불법 다단계로 보면 된다"며 "다단계 회사의 경우 광주지역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곳이 5곳 뿐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회사에서 피해를 보면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공정거래사무소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매 행위나 다단계판매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10일부터 여수, 순천 등에서 캠페인을 벌인다.



참여자치21 등 광주·전남지역 57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조선대 앞에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네트워크' 결성식을 가진 뒤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등록금 반값 약속 즉각 시행하라”

### 광주·전남 등록금 대책 네트워크 결성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결성됐다.

참여자치 21 등 광주·전남지역 57개 시민단체는 6일 오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앞에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 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대선에서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

금은 70% 가까이 폭등하여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광주의 평균 등록금도 595만원에 이르다”며 “조선대의 경우 연간 평균 등록금이 646만원이고 전남대는 전국 서석동 조선대 앞에서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 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대선에서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

시대적 과제”라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각층의 단체가 오늘 발족식을 시작으로,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고, 등록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정책 ▲무이자 국립대 중 8위를 기록하는 등 광주지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이들은 “이제 등록금 문제는 전 국민적인 민생문제가자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우리 모두의



다 좋은 건국·창업자금 KCC

(주)금속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사무보사 : 02) 3445-0943

나주공방 : 061) 337-0571

### “문화재 보조금 일부 국회의원 사무소 유입”

## 경찰·선관위 사실 확인 조사중

의원측 “흑색 선전” 반발

문화재 보수를 위한 국가 보조금 일부가 현역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측 등 관련자들은 “선거를 앞둔 흑색선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장흥지역 사찰의 문화재 보수를 위해 지원된 국가 보조금 일부가 현역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첩보가 입수돼 관련 사실을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찰은 지난 2006년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 이 사찰의 선원 건립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2억3천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중 2천만원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에게 전달된 혐의가 있어 조사중이

라는 것.

전남경찰청은 관할 장흥경찰을 통해 사찰 주지와 국회의원 사무소 관계자 등을 불러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여부와 사용처 등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의혹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선거를 앞둔 흑색선전이다”며 “도 지정 문화재에 국가 보조금 일부가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첩보가 입수돼 관련 사실을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과문이 일고 있는 해당 사찰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을 보관 중이며, 이 문화재 관리 명목으로 사찰 승려 숙소 보수를 위해 교부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카 양육 고민 30대 남성 자살

조카 양육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5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시도산동 Y유치원 앞길에 세워진 자신의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서모(35·광산구 도산동)씨가 숨져 있는 것을 Y유치원 차량 운전기사 차모(38)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차씨는 경찰에서 “유치원 앞에 이를 동안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안을 들여다 봤더니 서씨가 목을 맨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광주 S기업 직원인 서씨는 최근 부모 등으로부터 “조카 두 명을 자신의 호적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이 문제를 놓고 아내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여성과 결혼한 서씨의 형은 2년 전 가정불화와 채무관계 등을 이며, 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형수와 조카들은 완도에 사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왔다.

## 전남대·조선대 병원 간호서비스 하위권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간호서비스가 전국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병원간호사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에 따르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7개 등급으로 구분된 간호서비스 기준에서 하위권에 해당하는 4등급으로 분류됐다.

간호등급은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호사 수와 병상수를 나눈 것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숫자가 작아진다. ▲1등급은 1.0~2.0개 미만 ▲2등급(2.0~2.5개) ▲3등급(2.5~3.0개) ▲4등급(3.0~3.5개) ▲5등급(3.5~4.0개) ▲6·7등급(4.0개 이상)으로 구분된다.

이를 기준으로 병원간호사회가 지

난해 조사결과를 보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처럼 4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은 전국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16곳이나 됐으며, 3등급은 17곳, 1~2등급은 7곳에 불과했다.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원광대병원과 인제대 서울백병원으로 조사됐다.

/인한기자 ahj@kwangju.co.kr

### 다방 여종업원 성폭행·갈취 30대 구속영장 신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황모(36)씨를 강도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3일 새벽 0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모텔에서 차 배달을 시킨 뒤 여종업원 서모(22)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는 등 강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2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 옆 세워진 트럭 몰고 도주

○목포경찰은 6일 전자제품 가게 앞길에 세워진 화물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서모(41·목포시 용당동)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5분께 목포시 용당동 S전자 앞길에 주차된 한모(37·목포시 연산동)씨의 1트럭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타고 도주했다는 것.

○절도 전과 4범인 서씨는 훔친 차를 타고 가던 중 무안군 삼향면 B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그대로 주행한 찌는데, 경찰에서 서씨는 “술만 마시면 나도 모르게 차를 훔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

○경찰은 “누군가 차를 훔쳐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직원들을 긴급 배치해 수사를 하던 중 용의차량을 발견, 20~30km 가량 추적한 끝에 서씨를 검거.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황산·장가제 名山紀行**

2008년 4월 27일 ~ 5월 27일

<p>1. 황산·장가제-장가제</p> <p>₩292,000 (4인 기준) ₩448,000 (6인 기준)</p>	<p>2. 황산(대정동) - 황주</p> <p>₩289,000 (4인 기준) ₩445,000 (6인 기준)</p>
<p>3. 황산(대정동) - 황주(10일) - 황주(15일)</p> <p>₩448,000 (4인 기준) ₩705,000 (6인 기준)</p>	<p>4. 황산(대정동) - 황주(10일) - 황주(15일)</p> <p>₩429,000 (4인 기준) ₩686,000 (6인 기준)</p>

2008년 4월 29일 ~ 5월 27일

<p>1. 황산·장가제-장가제</p> <p>₩448,000 (4인 기준) ₩705,000 (6인 기준)</p>	<p>2. 황산·장가제-황주</p> <p>₩445,000 (4인 기준) ₩702,000 (6인 기준)</p>
<p>3. 황산·장가제-황주</p> <p>₩448,000 (4인 기준) ₩705,000 (6인 기준)</p>	<p>4. 황산·장가제-황주</p> <p>₩445,000 (4인 기준) ₩702,000 (6인 기준)</p>

모두투어 광주/전남, 북여행사 판매 문의전화: 062/226-6070